

## 會 員 社 消 息

# 대한전선, 중국내 통신케이블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 체결

\* 大韓電線(대표 兪彩濬)은 中國通信建設總公司 등 중국측 5개사와 총투자 3천만 US\$ 규모의 한·중 합작 통신케이블 제조회사인 <大京通信電纜有限公司> 설립 계약을 3월 31일 中國 北京市 人民大會堂에서 체결, 본격적인 중국현지 생산·판매 시대가 개막되었다.

\* 北京市 大興縣에 설립키로한 <大京通信電纜有限公司>는 대한전선이 55%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중국측 5개사가 합작으로 투자하였다.

\* 새로 설립된 합작회사는 지금까지 한국업체가 중국과 합작투자한 사업중 최대규모이며, 설립자본금은 1천2백만불이다.

\* 금번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한 중국측 기업은 북경시 산하 中國通信建設總公司(CHINAINTERNATIONAL TELECOM CONSTRUCTION CORPORATION, CITCC) 10%, 北京市電信管理局(BTA) 8%, 北京光通信公司(BEIJING OPTICAL COMMUNICATION CO.) 12%, 北京市 大興縣 黃村鎮 工業總公司 5%, 金

寶島電纜公司(GICC) 10% 등 5개사로 이들은 모두 中國 郵電部(통신사업 주관 정부부서)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, CITCC는 中國 郵電部 산하의 최대 종합 통신건설기업이다.

\*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제품은 중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며, 중국내 통신케이블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.

\* 또한 중국 내수도 산업화의 속도에 따라 대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<大京通信電纜有限公司>는 앞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.

\*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대한전선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주요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게 되며, 생산에 필요한 설비는 '92년 하반기부터 투입되기 시작, '9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.

\*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중국측 관계인사 3백 80여명과 대한전선(주) 薛元亮회장, 兪彩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대표부 盧載源대표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거행되었다.